

## 펩트론, 파킨슨병 치료제 미국 특허 취득

- ▶ BBB 투과율을 증가시킨 PT320으로 2037년까지 독점권 확보
- ▶ 기존 특허 만료에 대한 시장 우려 해소

**[2022-05-17]펩타이드 기반 약효지속형 신약 개발 선도기업 펩트론(대표이사 최호일, 087010)이 파킨슨병 치료제 후보물질 PT320의 미국 특허를 취득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등록된 특허는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이하 NIH)으로부터 기술도입한 GLP-1 계열 펩타이드의 신경퇴행성 질환 치료용 특허를 뇌혈관장벽(BBB) 투과가 우수한 형태로 발전시켜 CNS 전반으로 권리 범위를 확대시킨 것으로, 펩트론의 독보적 기술인 스마트데포(SmartDepot) 기술이 적용됐다.

펩트론의 SmartDepot 기술은 약효지속성 약물전달 플랫폼으로 기존 에멀전 방식에 비해 초기 과다 방출 부작용 및 방출 지연의 문제점을 동시에 해결해 치료 효과에 가장 이상적인 약물 방출 성능을 구현했으며 제조 수율이 높고 스케일 업(Scale-up)이 용이해 대량 생산에 장점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사 관계자는 해당 특허 취득에 관하여 “펩트론의 SmartDepot 기술이 적용된 GLP-1 제제는 일반 제형에 비해 BBB 투과율이 10배에서 50배 이상 증가하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나 파킨슨 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 뿐만 아니라 모든 CNS 질병에 효과적임을 확인해 이를 권리화한 특허다”라며 “엑세나타이드를 비롯한 모든 GLP-1 계열 약물의 서방형 제제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강화하고 2037년까지 연장시켰다”고 밝혔다.

또한 최호일 펩트론 대표이사는 “시장에서 기존 NIH 용도 특허의 존속 기간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번 특허 취득을 통해 이러한 우려를 해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며 “가장 중요한 시장인 미국에서 먼저 등록에 성공한 만큼 유럽 등 전세계 주요 국가에 등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펩트론은 해당 특허 기술을 적용한 엑세나타이드 파킨슨병 치료제 PT320의 국내 임상 2상을 진행 중이다. 올해 안에 최종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어서 국내외에서 최초의 파킨슨병 치료제 가능성으로 주목 받고 있는 GLP-1 계열 펩타이드의 임상 중 가장 빠르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